

한국산림기술인회
The Korea Forest
Engineer Association

산림기술 소식

32번째
산림기술 이야기



2026년 07+08월호

2026
Vol. 32



한국산림기술인회
The Korea Forest Engineer Association

산림기술 소식 ㉮

2026년 07+08월호 Vol. 32
CONTENTS



발행일 2026년 8월 31일 발행 한국산림기술인회
기획·편집·디자인 한국산림기술인회 일반사업본부 대외협력단
www.tkfea.or.kr (한국산림기술인회)
www.tkfeaedu.com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대표전화 1522-5936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1533-5160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1~3번 교육 문의 / 4번 회원 문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2층



산림 정보 특특!

읽을거리 및 정보 제공

- 01 7+8월호 여는 말
- 02 2026년 전국 산림안전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 04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9·10월 교육일정 안내
- 06 사면안정해석 심화과정 및 복원취득과정 안내
- 08 최근 제개정 산림관련 법령 안내
- 10 가을철 안전사고 및 안전수칙
- 12 (산림청) 산림복원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산림 이야기를 담다

산림 소식 및 전문가 기고

- 14 (아카이브) 스마트 산림기술 리포트
- 18 (시리즈) 새로운 숲을 만나다
- 28 (기고) “우리 대나무, 자원으로 다시 태어나다”
- 30 (기관 포커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기술인회 +

우리 회 소식 및 공지

- 36 (보도자료) 시도지회 개소식 개최
- 42 사진으로 보는 한국산림기술인회 활동
- 44 전호 이벤트 당첨자 및 7+8월호 이벤트 안내
- 46 추석 인사말 및 추석 연휴 휴무 안내
- 48 9~10월 휴무 안내 및 숲을 담은 한 컷 모집 안내



◀ 소식지 바로보기

회원 여러분의 제안과 리뷰를 기다립니다. members@tkfea.or.kr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의견을 선정해 소개해 드립니다.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한국산림기술인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으며, 소식지 내 게재된 글, 사진, 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는 금합니다.



카카오톡 친구 추가



블로그 이웃맺기



밴드 가입하기



유튜브 구독하기



Forest letter

“

푸른 숲을 일궈낸 땀방울, 결실의 계절로

”

치열했던 여름의 열기도, 거칠었던 빗줄기도
숲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 앞에서는 숨을 죽입니다.

유난히 길고 뜨거웠던 지난 7월과 8월,
묵묵히 산림 현장을 지켜주신 기술인 여러분 덕분에
우리 숲은 더욱 울창하고 푸르게 깊어졌습니다.

늦여름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지금,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여러분의 ‘안전’입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풍요로운 결실과 기분 좋은 바람이
여러분의 일상에 가득하길 기대하며

이달의 포레스트 메시지를 전합니다.



2026 한국산림기술인회 전국 산림안전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2026.7.13.(금)~9.11.(금)까지 모집

참가대상 산림기술자, 산림 관련 종사자, 산림 학과 대학생



공모분야 주제 택1 / 형식 택1

주 제	상세내용	제출형식
산림 사업장 안전관리 노하우	안전사고 예방 실천 사례 및 안전 꿀팁	① 영상 콘텐츠 or ② 아이디어 제안서
산림 안전 모델 아이디어	창의적 제안을 통한 산림 안전 모델 발굴	

공모일정
신청·접수 ▶ '26. 7. 13.(월) ~ 9. 11.(금)
예선심사 ▶ '26. 9. 중순
본선심사 ▶ '26. 9. 하순
결과발표 ▶ '26. 10. 중순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안내
시 상 식 ▶ '26. 11. 27.(금) / 제6회 산림기술인의 날

시상내역

구 분	시상내역	훈 격
최우수상	상장·상금 100만원	산림청장상
우 수 상	상장·상금 50만원	한국산림기술인회장상
장 려 상	상금 20만원	-

심사방법 예선심사(서류심사) ▶ 본선심사(전문 심사위원)

공모방법 이메일 접수(kongmo@tkfea.or.kr)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9월·10월 교육과정 안내

-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의 9·10월 교육일정을 안내드립니다 -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포털 검색창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입력 및 검색

LOG IN

ID

PASSWORD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개인회원 로그인
(한국산림기술인회 계정 동일)

신용카드

가상계좌

교육과정 선택 후 결제수단 클릭

신청완료

신청완료 버튼 클릭 후 결제(결제창 생성) ※ PC·모바일 모두 사용 가능

※ 교육 신청 인원이 최소인원(20명) 미만일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
※ 교육 일정은 교육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회원 혜택] 취득과정 개인 정회원 및 업체 정회원 소속 기술자 교육비 할인

10·11월 교육과정(자격취득과정)	
10월 12일(월) ~ 23일(금) / 2주간	11월 23일(월) ~ 12월 4일(금) / 2주간
제3기 산림기술자 복원취득과정	제4기 산림기술자 공학취득과정

제3기 산림기술자 복원취득과정 기준 60만원 → 할인가 50만원(홈페이지 적용)

교육대상 :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10조 [별표 3]에 따른 산림복원기술자격취득을 원하는 자
교육방식 : 비대면(1주) + 집체교육(1주) * 비합숙

제4기 산림기술자 공학취득과정 기준 60만원 → 할인가 50만원(홈페이지 적용)

교육대상 :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10조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격취득을 원하는 자
교육방식 : 비대면(1주) + 집체교육(1주) * 비합숙

법정보수교육은
1일 대면 + 4일 비대면 혼합교육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9·10월 교육과정(법정보수교육)		
9월 14일(월) ~ 18일(금)	10월 26일(월) ~ 30일(금)	10월 19일(월) ~ 23일(금)
제2기 경영기술 전문과정	제2기 녹지조경기술 전문과정	제4기 경영+공학 통합과정

제2기 경영기술 전문과정

이수대상 : 산림경영기술자 단일 자격 소지 및 근무 기술자(매 3년마다 이수)
※ 통합(35시간), 필수(20시간), 선택(15시간) 분할 신청 가능

제2기 녹지조경기술 전문과정

이수대상 : 녹지조경기술자 단일 자격 소지 및 근무 기술자(매 3년마다 이수)
※ 통합(35시간), 필수(20시간), 선택(15시간) 분할 신청 가능

제4기 경영+공학 통합과정(40시간)

이수대상 :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등 2개 이상 자격 소지 및 근무 기술자(매 3년마다 이수)
※ 경영 필수(20시간), 공학 필수(20시간) 분할 신청 가능

한국산림기술인회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사면안정해석 심화과정

2026년 11월 6일(금) 10:00 ~ 18:00 / 7시간

신청안내



산지전용 허가에 필수적인 재해위험성 평가 실무역량 높이기

- 사면안정해석(심화)을 통한 검토의견서 작성 기준 확립
- 현장 주요 이슈에 대한 주제별 토론 중심의 실무 문제 해결 능력 향상
- 관련 실무자 간 기술 교류 및 현장 대응 전문성 강화

- ✓ 교육비 : 150,000원
- ✓ 접수기간 : ~ 2026년 10월 30일(금) 12:00까지 *제출기한이 넘을 경우 유선 연락
- ✓ 제출방법 : 메일(tkfeaedu@tkfea.or.kr) / 공문발송(한국산림기술인회장)
- ✓ (온라인 신청)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홈페이지(www.tkfeaedu.or.kr) 내 온라인 신청
- ✓ (서면 신청)
명단 제출(~10.23.) → 견적서 발행(10.26.~30.) → 교육비 납부(11.2.~5.) → 교육진행(11.6.)
→ 수료증 발급 → 전자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
- ✓ ☎ 1533-5160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2026년도 제3기 산림복원기술자 자격취득과정

2026년 10월 12일 ~ 10월 23일 / 2주간

모집인원 60명(선착순 모집)

교육일정

교육방식	구분	일정	장소	비고
대면·비대면 혼합 (70시간)	비대면 (50%)	'26.10.12. 10.16. (35시간)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홈페이지 및 'ZOOM'강의 플랫폼 활용	비대면
	대면 (50%)	'26.10.19. 10.23. (35시간)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대전 서구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2층)	현장 출석

교육비

구분	교육비	비고
할인금액	500,000원	* 할인대상 한국산림기술인회 개인 정회원 / 업체 정회원(소속 기술자) / 대학생
기본금액	600,000원	일반회원

신청방법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tkfeaedu.com)

문의사항 ☎ 1533-5160

최근 산림법령 동향

변화하는 산림 정책, 최신 제·개정 법령 한눈에 알아보기



[시행 2026. 7. 28.] [대통령령 제36534호, 2026. 7. 28., 일부개정]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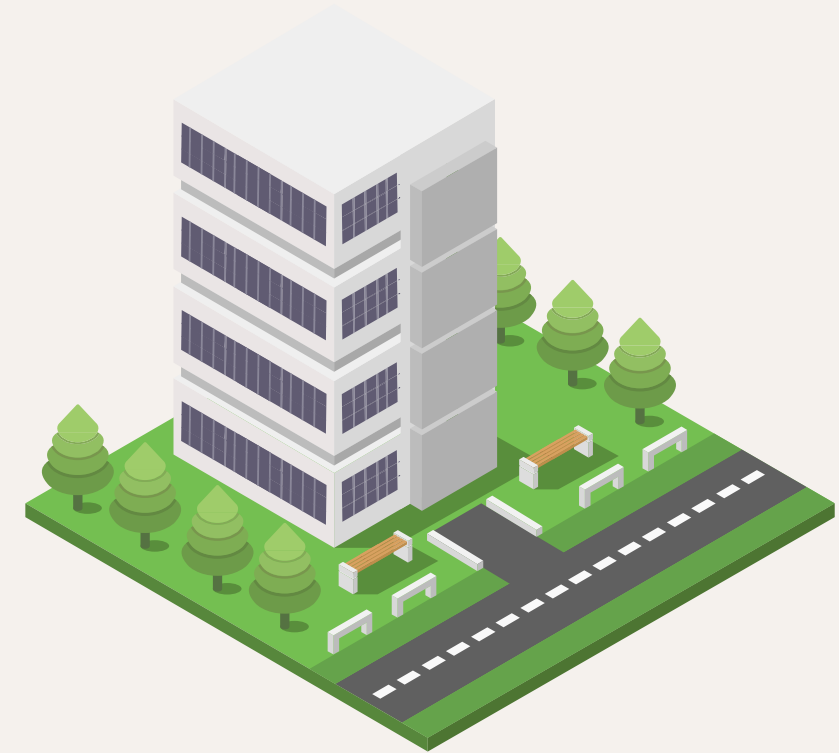
산림치유지도사의 양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대상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산림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추가하려는 것

[주요내용]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산림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시행 2026. 8. 18.] [대통령령 제36584호, 2026. 8. 18., 일부개정]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대상을 산림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확대하며,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 중 강의실 등
기본시설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

[주요내용]

별표 1 제1호나목 중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산림교육을 위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비영리민
간단체 중 그 설립목적에 산림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 중 “1m² 이상으로 50명 이상 수용할 수 있을 것”을 “1m² 이상일 것”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열람좌석 10석 이상으로 산림 관련 도서를 200권 이상 갖출 것”을 “산림 관련
도서를 200권 이상 갖출 것”으로 한다.

가을철 안전사고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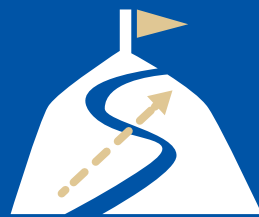
온도차가 커지면서 몸이 적응해야 하므로 긴장으로 심장 돌연사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음주 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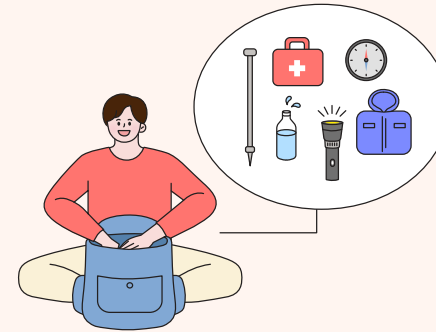
무리한 산행



등산로 이탈

가을철 등산 시 안전 수칙!

02



산행에 적합한 등산화, 옷, 식량, 장비를 준비합니다.

04



지정된 산행 코스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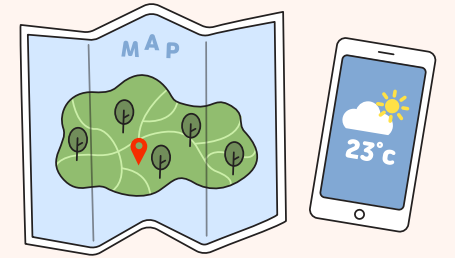
06



사고 및 조난 시 신속하게 119로 구조요청합니다.

"산림 정보 특특" - 가을철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수칙

01



산행 전에 등산로, 날씨 정보를 수집합니다.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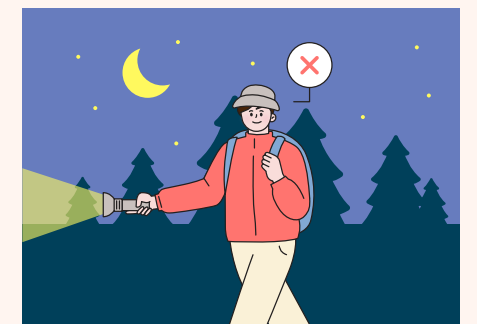
산행 전 준비운동을 합니다.

05



30분마다 수분 섭취를 합니다.

07



야간·나홀로 산행을 자제하고
어두워지기전에 해산합니다.

산림청

산림복원사업 품질 향상 전문교육

- 산림복원사업 담당공무원 및 설계·시공·감리 등 관련 종사자 대상 -

산림복원전문업 및 산림복원기술자 신설과 연계하여
산림복원현장의 실무적인 경험과 내용으로 집중 교육을 진행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개요

● 참석대상

산림청(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산림복원 담당자, 산림조합·산림기술용역업·산림사업법인 등 업무관계자

● 교육비 : 무료

● 교육신청 : 각 회차별 신청기한까지 전자우편(kfra0602@naver.com)으로 신청 / 교육 희망자 명단 서식 회신

교육일정

회 차	교육일자	시 간	주요내용	교육장소	신청기한
3	2026. 09. 16. (수)	13:00 ~ 17:00 (4시간)	산불피해지 복원	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소회의실	09. 09.(수)
4	2026. 10. 01. (목)		우수복원지 현장교육 (백두대간 바람재)	김 천 (현장교육)	09. 18. (금)

산불 피해지 복원 전문 교육

시 간	소요(분)	주요내용	비 고
13:00 ~ 14:00	60	산불 피해지 복원 사업 이해 및 실무	50분 강의 10분 휴식
14:00~15:00	60		
15:00~16:00	60	산불피해지 복원 사례	
16:00~16:50	50	산불피해지 복원사업 계획 및 설계·시공·감리	
16:50~17:00	10	소감 발표 및 마무리	

현장교육(김천 바람재)

시 간	소요(분)	주요내용	비 고
13:00 ~ 14:00	60	집결 및 이동	
14:00~15:00	30	김천 바람재 복원과정 설명	구미국유림관리소 담당자
15:00~16:00	60	복원지 설명/견학 및 토론	구미국유림관리소 담당자 산림복원협회 전문가
16:00~16:50	30	질의 및 응답	
16:50~17:00	60	마무리 및 이동(하산)	

Archive 스마트 산림기술 리포트

“산림 현장의 전문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업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체계적인 산림 기술 정보를 전합니다”

CHAPTER 3

고성능 임업기계와 임목수확작업시스템

글·사진_경북대학교 임학과 박 상 준 교수

타워야더

(Tower-yarder, 타워부착 집재기)

타워야더(Tower-yarder, 타워부착형 집재기)는 인공 철기둥(타워)과 가선 집재 장치를 임내차, 트랙터, 트럭 등에 탑재하여 주로 급경사지의 집재작업에 적용하는 이동식 차량형 집재기계로서, 가선의 설치 및 철거, 이동이 용이한 가선집재전용 고성능임업기계이다. 특히, 타워야더는 체인톱에 의한 벌도와 타워야더에 의한 전목집재 후 토장이나 임도변에서 프로세서로 조재작업을 실시하는 (체인톱 + 타워야더/스윙야더 + 프로세서)의 조합에 의한 타워야더형 임목수확작업시스템 (Tower-yarder type logging operation system)의 중요한 고성능임업기계이다.

일반 야더집재기와 용도가 비슷하나 이동, 설치가 쉽게 차체에 타워가 부착되어 임도상에서 대형의 경우 800미터까지 가선집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야더집재기가 1회 가선 통로를 설치하는데 2~3일이 소요되는데 비하여 설치조건이 좋으면 1시간 이내로 설치작업을 신속히 할 수 있으므로 예전의 야더집재기가 점차 타워야더로 대체되는 추세이다.



임내차 탑재형



트랙터 탑재형



트럭 탑재형

스윙야더

(Swing-yarder, 스윙형 집재기)

스윙야더(Swing-yarder, 스윙형 집재기)는 굴착기나 크레인 등에 타워야더 기능의 가선 집재원치를 장착하고, 굴착기나 크레인의 붐을 타워야더의 인공 철기둥(타워)으로 이용하여 일반적인 이동식 차량형 집재기계인 타워야더와 같이 가선 집재기능 및 역할을 하는 가선계 집재기계로서 가선의 설치 및 철거, 이동이 용이한 가선집재용 고성능임업 기계이다.

특히, 스윙야더는 체인톱에 의한 벌도와 타워야더나 스윙야더에 의한 전목집재 후 토장이나 임도변에서 프로세서로 조재작업을 실시하는 (체인톱 + 타워야더/스윙야더 + 프로세서)의 조합에 의한 타워야더형 임목수확작업시스템(Tower-yarder type logging operation system)에서 타워야더의 기능과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중요한 고성능임업기계이다.

가공본줄 설치길이에 따라 소, 중, 대형으로 분류하며, 100미터까지 상향집재만이 가능한 소형기종에서부터 전용차량에 탑재되어 800미터까지 상·하향 집재가 가능한 대형 기종까지 있다. 탑재용 기본차량으로는 임내차와 트랙터, 트럭 등의 크롤러식과 타이어식이 사용되며, 최근에는 급경사지 산림이 많은 일본에서도 간벌재 집재를 위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소형 및 중형 타워야더를 제작·보급하고 있다.

타워야더는 임도가 많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급경사지와 간벌작업에 효율적이므로 앞으로 산악지가 많은 우리나라에 가장 실용성이 높은 타워야더형 임목수확작업 시스템의 중요한 고성능집재기계이며, 앞으로 우리나라 임목수확작업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설치와 철거 및 이동이 쉬운 일반적인 타워야더와 용도가 같으나 특히, 굴착기나 크레인의 붐을 타워로 사용하므로 타워야더에서와 같이 타워의 설치를 따로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가선을 보다 신속하고 용이하게 설치, 철거를 할 수 있다. 또한 집재시 붐을 회전시켜 집재목을 바로 임도변에 집적시킬 수 있으므로 집재작업이 아주 효율적이다. 일반적인 타워야더와 같이 임도상에서 약 300m까지 가선집재를 실시할 수 있는 기종도 있다.

일본에서도 타워야더와 더불어 많이 개발 보급되고 있으며, 굴착기의 높은 보급에 따라 굴착기 버켓 대신에 프로세서 또는 그래플을 함께 장착하여 간벌재 집재작업등에 많이 보급 사용되고 있다.

또한 굴착기가 임도와 사방사업지 등 토목사업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굴착기를 스윙야더로 전환 이용하므로써 자재운반 등에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많이 보급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 가장 실용성이 높은 타워야더형 임목수확작업시스템의 도입에서 타워야더 역할뿐만 아니라 임도 및 사방사업 등에서도 큰 역할이 기대되므로 앞으로 많은 보급이 필요한 집재기계이다.



타워야더형 임목수확작업시스템

타워야더형 임목수확작업시스템(Tower yarder type logging operation system)은 체인톱에 의해 벌도하고 타워야더나 스윙야더로 전목집재한 뒤 토장이나 임도변에서 프로세서로 조재작업을 실시하는 (체인톱+타워야더/스윙야더+프로세서)의 조합에 의한 작업시스템이다.

이 임목수확작업시스템은 오스트리아 등의 중부 유럽이나 캐나다, 미국 서부지방 등의 산악지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타워야더나 스윙야더의 이동식 타워형이나 스윙형 집재기를 도입하므로써 종래 야더집재기(yarder) 작업에서 가선의 설치·철거 등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의 대폭적인 축소가 가능한 작업시스템이고, 다양한 가선집재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며, 경사가 급한 산악지에 특히 적합한 시스템이다.

이 작업시스템은 5인의 조별작업으로 1일 목재생산량이 보통 30~40m³, 연간 목재생산량이 약 5,000m³ 정도를 목표로 한다. 최근 일본에서도 급경사지작업에 많이 도입되어 있고, 경사지가 많은 우리나라의 임목수확 작업 시스템에 실용성이 높은 방식으로 앞으로 많이 도입되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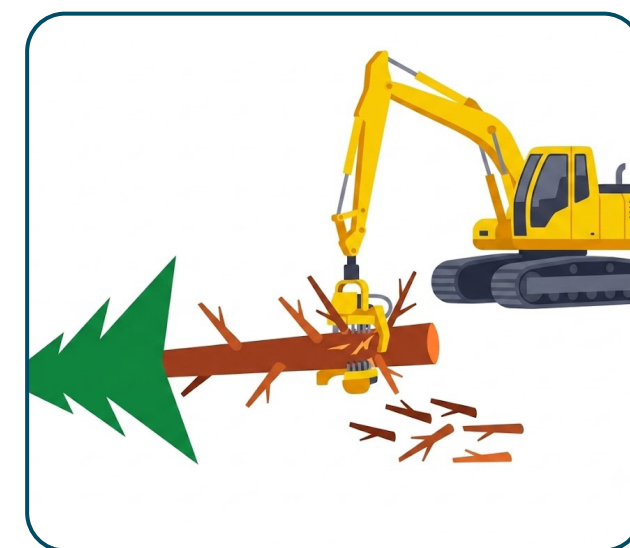
벌도(체인톱)



집재(타워야더 / 스윙야더)



조재(프로세서)



“새로운 숲을 만나다” 시리즈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도시숲

글·사진_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배상원 원장

크로아티아(Croatia)는 남유럽 발칸반도 서북쪽에 있는 면적 5.6만km², 인구 380만 명, 1991년 구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독립한 나라로 아드리아해를 품은 아름다운 해안선과 중세 성벽 도시로 유명하다. 동쪽으로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서쪽으로 아드리아해, 북쪽으로는 슬로베니아-헝가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크로아티아 전체 국토의 53%가 해발 200m 이하의 저지대이다.

저지대의 대부분은 크로아티아의 북부 지방에 있으며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은 디나르알프스산맥(Dinaric Alps)으로 여기에 크로아티아에서 가장 높은 디나라산(Dinara, 해발 1,831m) 있다.

크로아티아 숲 면적은 193만ha로 국토의 34%를 차지하고 있고 침엽수림 25%, 활엽수림 75%이며, 주수종인 너도밤나무 47%, 참나무(Qiercus robur, Q. petraea) 20%를 차지한다.

산악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전나무는 7~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어나무, 단풍나무, 독일가문비나무, 소나무 등이 분포하고 있다. 크로아티아의 수도인 자그레브(Zagreb)는 크로아티아의 북서쪽, 다뉴브강의 지류인 사바 강변에 있는 인구 77만명, 면적 641 km²의 크로아티아 최대도시다. 자그레브 대성당, 성 마르크 성당, 그라데츠 마을(Gradec), 반 엘라치치 광장(Trg bana Josipa Jelačića) 등이 유명하다.

사진 1 = 자그레브 대성당

크로아티아를 대표하는 자그레브 대성당은 1217년에 세워졌으며 성당의 상징인 108m 높이의 두 첨탑은 랜드마크이다. 성 마르크 성당은 13세기에 건립이 되어 1880년 대대적인 보수 과정에서 빨간색, 흰색, 파란색 타일로 꾸며져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라데츠 마을(Gradec)은 자그레브 구시가지(상부 도시, Gornji Grad)의 핵심을 이루는 중세 요새 마을로 과거 상인과 장인들이 모여 살던 곳으로, 현재는 자그레브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발전하였다.

자그레브에는 크고 작은 공원들이 시내 중심과 외곽에 산재해 있는데 이 중에 시내 중심에 있는 즌린 예비츠 공원(Zrinjevac Park), 자그레브 대성당 옆에 있는 리브냐크 공원(Park Ribnjak) 그리고 외곽에 위치한 막시미르 공원(Maksimir Park) 등이 유명하다.

자그레브 중심부에 위치한 즌린 예비츠 공원은 도시의 대표적인 녹지 축인 '레누치 말굽(Lenuci's Horseshoe)'의 시작점이자 가장 오래된 공원이다. 면적은 12,540m²로 1873년에 공식적으로 일반에 개방이 되었다. 수령 130년이 넘는 200그루 이상의 거대한 양버즘나무가 공원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데 공원 내에 음악 정자, 기상 관측 기둥, 자그레브 최초의 분수가 설치되어 있다. 1878년에 지어진 분수는 생 긴 모양 때문에 버섯(The Mushroom)이라고도 한다.

리브냐크 공원은 자그레브 대성당 바로 뒤편에 있는 대표적인 도심 속 녹지 공간으로 면적이 4.67ha로 리브냐크(Ribnjak)라는 단어는 크로아티아어로 양어장(Fishpond)을 뜻하는데, 19세기까지 이곳에 양어장들이 있었다.

1830년에 영국식 정원 스타일로 정비되며 대중적인 공원으로 개장된 공원은 현재 건축 유산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으며, 단풍나무와 관상수가 주를 이루고 있다. 단풍나무류와 물푸레나무가 가장 많고 목련, 미국풍나무, 아틀라스시다, 주목 등 조경적 가치가 높은 도입종들이 식재되어 있다.

자그레브 대성당에서 동쪽으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막시미르 공원은 자그레브 센트럴 파크라고 할 정도로 자그레브의 대표적인 공원이다. 면적은 316ha로 숲, 초원 그리고 다섯 개의 인공 호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발 120m~167m 사이에 있다.

막시미르 공원은 1787년에 조성되어 1794년에 정식 개장했으며, 영국의 풍경식 정원 스타일로 막시밀리안 브르호바츠 주교가 조성한 공원이다.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으며, 크로아티아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다. 연간 200만명 이상이 찾는 자그레브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공원 내에 자그레브 동물원이 자리 잡고 있다. 막시미르 공원은 서어나무와 참나무로 이루어진 천연활엽수 혼효림을 개간하여 조성되었다.

도심에서 전차나 버스를 타고 10분 정도 가면 막시미르 공원에 도착하는데, 흰색 정문을 지나 일자로 길게 난 길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 길 좌우로 커다란 참나무(Quercus robur)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사진 2 = 성 마르크 성당



사진 3 = 반 엘라치치 광장의 동상



사진 4 = 즈린 예비츠 공원 분수와 양버즘나무

길 왼쪽으로 난 산책로를 따라 들어가면 굵기가 한 아름이 넘고 수고가 20~30m가 되는 참나무 대 경목이 단목이나 3~4그루가 함께 서있는데 커다란 참나무 주변으로는 서어나무와 너도밤나무가 같이 자라고 있어 숲속이 짙은 것처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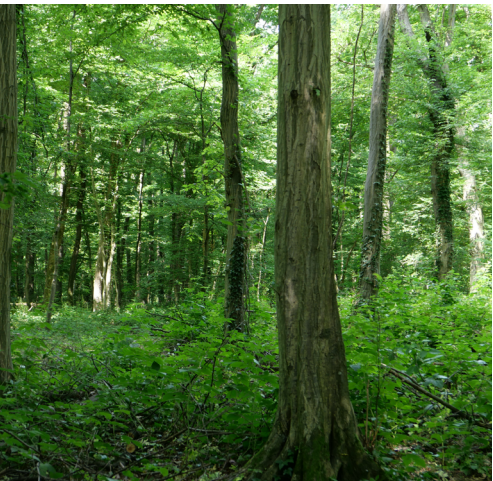
참나무 숲속으로 난 길을 가다 보면 마치 자연 그대로의 원시림 속을 걷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울창한 숲속으로 더 들어가면 앞이 흰히 트인 초원이 나오는데 잔디밭 주변으로는 커다란 참나무와 서어나무들이 줄지어 서있다.

또한 크로아티아 왕국 1000주년을 기념하여 1925년에 조성된 인공 언덕인 모길라 기념비가 서있다. 특히 초원 중간에는 막시미르를 상징하는 공원에서 가장 수령이 많은 수령 600년, 수고 17m의 데덱 (Dedek, 할아버지) 참나무가 서 있는데 2026년 봄에 폭풍으로 쓰러져 지금은 사라져 아쉬움을 남기지만, 후계 묘목을 공원에 심을 예정이라고 한다.



사진 5 = 리브냐크 공원 전경

사진 6 = 막시미르 공원 입구 전경
사진 7 = 서어나무·참나무 혼효림
사진 8 = 폭풍에 쓰러지기 전 데텍(Dedek, 할아버지) 참나무



초원을 지나 안으로 더 들어가면 면적 2ha, 깊이 4m의 막시미르 3번째 인공 호수가 나타나는데, 참나무, 서어나무 등 활엽수로 가득 찬 숲이 수면으로 반사된 모습은 새로운 경관을 만들어 내고 있다. 3번째 호수를 지나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2번째 호수가 보이는데 수변부에 가지를 늘이고 서있는 버드나무가 인상적이다.

공원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울창한 참나무 숲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참나무 노령목과 서어나무가 경쟁을 하며 같이 자라고 있고 일부 공간에는 수피가 매끈한 너도밤나무가 일부 자라고 있다. 숲속으로 난 오솔길은 마치 초록 터널처럼 보이고, 높이와 굵기가 다양한 여러 활엽수들이 자라고 있는 숲의 모습은 초록색 궁전처럼 보인다.

사진 9 = 모길라 기념비 전경
사진 10 = 3번째 호수의 활엽수 숲
사진 11 = 울창한 서어나무 숲



사진 12 = 2번째 호수 버드나무

안으로 들어 갈수록 참나무와 서어나무가 어우러져 자라는 울창한 활엽수 숲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참나무 수령 100년이 넘고 굵기도 한 아름이 넘는 노령대경목이 자라고 있어 막시미르 공원의 역사를 보는 것 같다. 이런 활엽수 숲을 지나 다시 입구 쪽으로 나오다 보면 수고 3~5m의 독일가문비나무 숲이 나타난다.

산책로 주변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숲에는 수고 20m가 넘는 커다란 독일가문비나무가 단목으로 몇 그루 서있는데 이 숲은 가뭄과 병해충 피해를 받아 2012년 부터 새로 식재를 한 숲으로 공원 내에 유일한 독일가문비나무숲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 14 = 독일가문비나무 숲

사진 15 = 호수 수면에 걸친 줄기 위의 거북이



사진 13 = 초록 터널 숲길

공원 입구 쪽 첫 번째 호수 쪽으로는 피나무, 물푸레나무, 가문비나무 등 다양한 수종이 무리로 자라고 있다. 호수 수면에 걸친 나무줄기에는 자그마한 거북이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이 특이해 보이는데 이 거북은 자생종이 아니라 애완용 거북이를 이곳에 풀어 놓은 것이라고 한다.

자그레브에는 공원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 규모가 크고 숲의 형태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자연 체험이 가능한 막시미르 공원은 도시숲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이 지역의 자생수종으로 이루어진 노령 참나무 숲은 그 생태적적 가치가 높고, 이외에도 다양한 수종들이 자라고 있고, 동물원까지 있는 막시미르 공원은 크로아티아를 대표한 도시숲이다.

이외에도 자그레브의 녹지 축을 이루고 양버즘나무 둘러싸인 즈린 예비츠 공원 그리고 대성당 옆에 있는 리브냐크 공원은 도심의 중요한 녹색공간으로 시민들에게 도심 속에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산림기술인회 기고

우리 대나무(竹) 자원으로 다시 태어나다

글_정 병 걸 現 한국산림기술인회 감사 및 농림업인 / 前 산림청 부이사관

우리나라 대나무류는 해장죽속·왕대속·이대속·조릿대속의 4속 14종류가 있으며, 전 세계에는 12속 500여 종이 있다. 왕대는 중국 원산으로 국내에 널리 식재되어 땅속줄기로 길게 옆으로 뻗어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에 걸쳐 죽순을 낸다. 조릿대(일명 산죽, 시누대, 신우대 등)는 줄기가 가늘고 유연성이 좋아 생활용품, 공예품, 관상용품 등의 재료로 사용하였다. 산림청 임업통계(2020년 말 기준)에 따르면 약 20천ha의 죽림(竹林)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

우리나라 대나무 농림가 소득 증대 도모 등 기대

최근 대나무는 생활용품, 공예품 등으로 사용이 줄어들고 있으며, 산림에서는 조림사업 실행 시 묘목 표시봉으로 쓰이고 있다. 묘목 표시봉은 심은 나무 옆에 꽂아 풀베기, 사름울(활착울) 조사, 거름주기 등 실행 시 심겨진 묘목의 식별이 쉽게 하는 것으로 대부분 조릿대(길이 1.0m×Ø평균 8mm)나 왕대를 규격에 맞춰 여러 개로 쪼개고 다듬어 사용하는 나무심기 사업의 주요 자재 중 하나다.

2025년 임업통계를 보면 산림용 대표 조림수종인 소나무와 낙엽송이 6,500ha(총 17천ha, 38%)의 면적에 1,600만본(총 3,900만본, 40%)이 심어졌다. 이때 묘목 표시봉으로 약 20억 원(120원/개당)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산주가 소유한 사유림 조림(약 13천ha)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지만 전체 사업비의 10%는 산림경영이 열악한 산주가 자부담(약 80억 원)하고 있다.

대나무(竹林)는 가옥 주변 울타리, 농경지(밭), 공한지, 산림 내 등에 분포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왕성한 성장으로 굴착기로 뿌리를 제거하는 등 퇴치가 필요할 정도라고 한다. 산림 내에 분포하고 있는 산죽의 경우 나무심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불발생 시 대나무의 잎과 꺾질은 불에 매우 잘 타므로 대형 산불의 확산 우려가 있기도 하다.

필자는 수년전부터 농한기(동절기 수액정지 시기)에 가옥 주변에서 묘목 표시봉을 연간 약 1천여 본 이상을 자가생산하여 산림용 조림지와 농경지(田畵)에 음나무(일명 엄나무), 참두릅, 마가목, 과수목 등

“산림 이야기를 담다” - (기고) - “우리나라 대나무, 자원으로 다시 태어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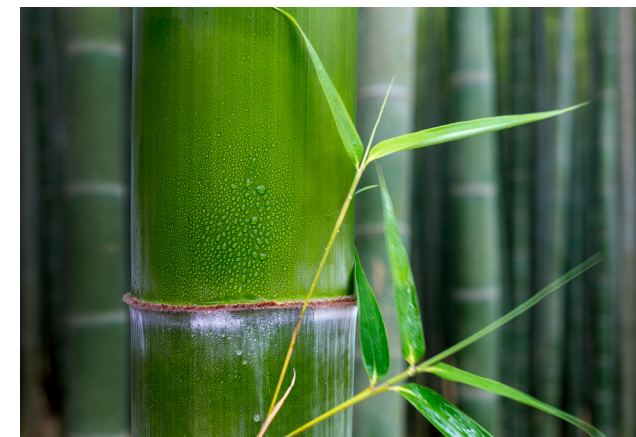
나무심을 때 함께 사용하여 표시봉 구입비를 절감하는 등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표시봉 제작은 특별한 도구 없이 작은 톱(손톱) 이나 전정가위 등을 활용하면 누구나 손쉽게 생산이 가능하다.

국내산 묘목표시봉 생산은 재료 수집의 어려움과 높은 인건비 등으로 경제성이 낮아 값싼 중국산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

비록 작은 규모이지만 농번기 농촌의 소일거리로 산림조합 등을 활용 국고보조사업으로 제작 이용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 대부분 농산촌의 마을단위로 노인회가 조직되어 있다. 농한기에 묘목 표시봉 생산 시 지역주민의 친목 도모와

공동기금 마련 등 마을공동체 활동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수 있으며, 또한 국유림 내에 대나무 분포지가 있을 경우 해당 마을에 국유림보호제도를 활용하면 원재료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산림에 있는 자원의 활용으로 외화절감 및 산림재난인 산불의 인화물질 사전저감 효과에도 일조할 것이다. 농산촌 농한기 일자리 창출, 농림가(農林家) 소득 증대 도모는 물론 농림업인들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해 본다.





“소개합니다”

우리 땅의 씨앗으로 숲을 채우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글·사진_국립백두대간수목원 산림생태복원실 제공

산림생태복원 전문기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기후재난과 각종 개발로 산림 훼손이 심각해지면서, 훼손된 자연을 건강한 모습으로 되살리는 ‘생태복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산림복원은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땅이 본래 가지고 있던 생태적 균형과 생물다양성을 회복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 맞춰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비롯하여 국립세종수목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 등 각 권역별 생태복원 수행을 위한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6월호에서 소개한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훼손지 주변에서 찾아낸 우리 식물의 힘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핵심은 ‘권역 맞춤형 생태복원’에 있습니다. 산림 훼손지가 발생하면 공급센터는 해당 지역의 주변 산림에서 오랜 세월 그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응해 온 자생식물의 종자를 직접 수집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종자는 공급센터의 전문 인프라와 기술을 통해 증식·재배하고, 건강한 복원용 식물소재로 생산하여 다시 훼손지 복원에 활용합니다. 훼손지의 환경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자생식물 소재를 활용함으로써 식물의 안정적인 활착을 돕고, 훼손된 숲이 본래의 생태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산림복원 현장에서는 사업에 활용할 식물소재의 안정적인 공급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외래종이나 해외에서 수입한 식물소재에 의존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식물소재의 사용은 지역 고유의 유전적 특성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으며, 수입 과정에서 유해 생물이나 외래종이 유입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산림생태계의 생물다양성과 유전적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산림에서 수집한 우리 식물로 산림훼손지의 복원까지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는 우리 산림에서 직접 수집하고 증식한 자생식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이러한 해외 수입 소재를 점차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산림생태계가 지닌 고유한 유전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역 환경에 적합한 산림복원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 자생식물 증식·재배 연구 모습

해외 수입 소재 대체와 유전다양성 보전

그동안 국내 산림복원 현장에서는 사업에 활용할 식물소재의 안정적인 공급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외래종이나 해외에서 수입한 식물소재에 의존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식물소재의 사용은 지역 고유의 유전적 특성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으며, 수입 과정에서 유해 생물이나 외래종이 유입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산림생태계의 생물다양성과 유전적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는 우리 산림에서 직접 수집하고 증식한 자생식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이러한 해외 수입 소재를 점차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산림생태계가 지닌 고유한 유전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역 환경에 적합한 산림복원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숲을 지키는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산림생태복원 지원 과정은 우리 숲의 유전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산림 복원을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복원이 필요한 산림 훼손지 인근의 건강한 숲에서 오랜 세월 해당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응해 온 자생식물의 종자를 수집합니다.

확보된 종자는 정선과 활력검사 등 엄격한 품질관리를 거쳐 안전하게 저장되며, 이후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전문 인프라와 증식기술을 통해 척박한 훼손지에서도 안정적으로 생육할 수 있는 건강한 복원용 식물소재로

생산됩니다. 이렇게 생산된 고품질의 자생식물 소재는 국가 산림복원 현장에 공급되어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는 소재로 사용됩니다. 결국 우리 땅에서 수집한 씨앗이 다시 우리 숲으로 돌아가 새로운 생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나라 산림의 유전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역 환경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산림복원을 실현하는 기반이 됩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 건강한 복원소재의 생산 모습

자생식물 복원소재 종자수집



지속가능한 산림복원 경영 구축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는 온대 중·북부권역의 생태복원 소재 공급을 위한 거점으로서, 고품질 종자의 수집·저장·관리부터 표준화된 증식·재배 기술 연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발적인 복원에 그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에서 과학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복원의 기반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씨앗으로 우리 숲을 복원하는 일은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자연을 물려주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앞으로도 유전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산림복원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우리 산림생태계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든든한 기반이 되겠습니다.



복원소재 묘목 생산 현장

기술인회 NEWS

한국산림기술인회

대전·세종·충남지회 개소식

충남 홍성군에 새 둥지 ...
지역 산림기술 발전 및
현장 소통 강화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지난 8월 12일 충남 홍성군 소재 사무실에서 ‘대전·세종·충남지회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대전·세종·충남지회는 충청권 산림기술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산림 행정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충남 홍성군에 새롭게 자리를 잡았다.

이날 행사에는 진영문 회장을 비롯해 본회 임직원, 서도원 대전·세종·충남지회장, 충남도청 김영명 기후환경산림국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주요내빈 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지회 개소 경과보고 및 임명장 수여를 시작으로 ▲진영문 회장 인사말 ▲서도원 지회장 환영사 ▲충남도청 김영명 기후환경산림국장 축사 ▲산림조합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김현호 본부장 축사 ▲(사)한국전문임업인협회 서동진 충남지회장 축사 ▲현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경과보고를 통해 지회 설립 및 개소 추진 경과와 주요사업을 공유하고, 충청권 산림기술 발전 및 향후 지회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참석자 전원 모두 지회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현판 제막식을 갖고, 충청권 산림기술인들의 화합과 발전을 기원하며 의미를 더했다.



이번 대전·세종·충남지회 개소를 통해 앞으로 지역 산림기술인 대상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와 유관기관 협력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도원 대전·세종·충남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역 산림기술인의 권익 신장과 현장 중심의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영문 한국산림기술인회 회장은 “대전·세종·충남 지회 개소를 계기로 충청권 산림기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지역 산림산업 발전의 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술인회 NEWS

한국산림기술인회

전북지회 개소

“지역 산림기술 전문성·소통 높인다”

전주시에 지회 신설...
지역 유관기관 협력 등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전북 지역 산림기술 발전과 현장 소통을 위한 새 동지를 텃다. 기술인회는 지난 8월 24일 전북 전주시 소재 사무실에서 '전북지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진영문 회장과 양정기 전북지회장을 비롯해 서부지방산림청 김인천 청장, 전북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 송경호 과장,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이대성 본부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전북지회의 새 출발을 격려했다.

행사는 지회 설립 경과보고와 임명장 수여식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 축사에 나선 주요 내빈들은 전북지회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이후 진행된 현판 제막식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전북지회 개소를 축하하며, 지역 산림기술인들의 화합과 발전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전북지회는 산림기술인 대상 교육, 유관기관 협력 사업 등을 본격 추진하며 전북 지역 산림기술 발전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양정기 전북지회장은 “전주에 새 동지를 틈 만큼, 지역 산림기술인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 중심의 소통과 권익 신장을 위해 발로 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진영문 한국산림기술인회 회장은 “전북지회 개소는 충청권에 이어 전북 지역의 산림 기술 경쟁력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술인 교육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산림기술인회는 대전·세종·충남지회에 이어 이번 전북지회를 순차적으로 개소하며 지역 산림기술 네트워크 구축과 현장 소통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술인회 NEWS

한국산림기술인회

전남광주지회 개소식

"지역 산림 현장 대응력 높인다"

전남광주 지역 산림기술인
현장 지원 등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지난 8월 28일 전남광주시 소재 사무실에서 '전남광주지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개소식에는 진영문 회장과 임홍준 전남광주지회장을 비롯해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자리를 참석해 지회의 첫 출발을 축하했다.

행사는 지회 설립 경과 보고와 임명장 수여에 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청사 강신희 산림자원과장, 담양군 한연덕 미래성장국장,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박형호 전남지부장 등 주요 내빈 축사가 진행됐다.



또한 현판 제막식을 통해 참석자들과 함께 전남광주 지역 산림기술 발전과 현장 소통 강화를 향한 첫발을 내딛었다.

이번 개소로 전남광주지회가 급변하는 산림 환경 속에서 지역 산림 행정과 현장 기술인을 잇는 실질적인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전남광주지회는 지역 회원들의 권익 증진과 안전한 산림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유관기관 연계 협력 사업 등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임홍준 전남광주지회장은 "산림 현장의 작은 목소리 에도 귀 기울이며, 회원들의 권익 증진과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영문 회장은 "전남광주지회가 지역 산림 현장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본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산림기술인회는 대전·세종·충남지회와 전북지회에 이어 전남광주지회를 순차적으로 개소 함에 따라 이를 거점으로 권역별 산림기술 지원 체계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사진으로 보는 한국산림기술인회 활동
The Korea Forest Engineer Association Activities



중장기발전 미래전략계획 수립 연구 중간보고회



남부지방산림청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전세종충남지회 개소식



전북지회 개소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 업무협약



제3차 한국산림기술인회 정기 이사회



전남광주지회 개소식



영덕국유림관리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한국산림기술인회 시도지회장 간담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동영상 제작 착수보고회



홍천국유림관리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광산군청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5+6월호 이벤트

당첨자발표

축하합니다!

- ✓ 문 * * (0945)
- ✓ 유 * * (4257)
- ✓ 윤 * * (5555)
- ✓ 전 * * (6631)
- ✓ 김 * * (8577)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개별 연락을 통해
경품을 발송 드릴 예정입니다.



EVENT



산림기술 소식IN

소식지 이벤트



이벤트에 참여하신 회원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Q 이번 「산림기술 소식IN」 소식지 회차는 몇 번째일까요?

이벤트 기간

2026년 9월 1일(화) ~ 10월 16일(금)

경품지급

기간 내 참여자 중 10명 추첨 경품 개별 발송

결과발표

2026년 11월 초 예정(소식지 당첨자 발표)

참여하러가기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秋夕

을 추석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즐겁고
풍성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가위 되세요!



한가위 秋夕

행복하고 풍요로운
명절 보내세요



추석연휴 기간 동안 민원안내서비스(ARS)가 중단됩니다.

9월 28일 월요일부터 정상 운영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석연휴 일정안내 ◆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20	21	22	23	24	25	26
				추석연휴		
27	28	29	30	1	2	3
	정상운영					

추석 연휴(9/24~9/27) 동안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교육 및 자격증 등)은 가능합니다.



한국산림기술인회
The Korea Forest Engineer Association

10월 휴무안내

개천절 | 대체휴일 | 한글날로 인한 휴무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7	28	29	30	1	2	3 개천절
4	5 대체휴일	6	7	8	9 한글날	10

10월 공휴일 및 대체휴일로 위와 같이 쉬어갑니다.
미리 확인하시어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한국산림기술인회
The Korea Forest Engineer Association

한국산림기술인회 정회원 대상

한국산림기술인회 숲을 담은 '한 컷' 모집 안내

여러분이 마주하는 숲의 오늘을 공유해 주세요.
현장의 산림기술인의 생생한 삶이 담긴 사진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기록을 기다립니다.

모집대상

한국산림기술인회
정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 산림기술자(개인)
- 산림사업체(업체)

모집내용

- ✓ 생생한 산림 현장 모습
- ✓ 아름다운 풍경 및 특색있는
- ✓ 산림 관련 자유주제

이메일신청

members@tkfea.or.kr



한국산림기술인회
The Korea Forest Engineer Association

Vol.32

산림기술 소식 N

2026년 07+08월호

한국산림기술인회 소식지
